불교, 공공부문 마음돌봄 진행한다

불교상담개발원, 9월 6일부터 마음치유 '늘봄' 프로젝트 시작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개발
불교명상지도사 파견, 4주 지도
공공분야종사자 중심으로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이 봉은사서 진행한 생명살림법회 모습.

공공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불교명상을 활용한 마음치유의 장이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9월 13일 마음돌봄 치유 '늘봄' 사업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진행계획을 밝혔다.

마음돌봄 치유 '늘봄' 사업은 불교상담개발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진행하는 심리치유, 상담프로그램으로 명상을 통해 의료, 복지, 재난 분야 공공서비스 종사자들과 소외계층 마음돌봄이 이어진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해, 우선적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약, 복지분야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준비해왔다.

개발된 명상프로그램은 '참깨나무'로 '참여하기' '깨어있기' '나눔하기' '무르익기' 등 4주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시작은 9월 6일 천안노인대학에서 진행됐으며, 향후 총 90회에 걸쳐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불교상담개발원의 마음치유 '늘봄' 프로젝트는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마음치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눈길을 끈다.

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의 마음치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MBSR 등 서구에서 도입된 명상이 공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 전통에 기반한 명상은 제공되고 있지 못했다"며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경찰, 소방 등 여러 공공분야에서 마음치유에 불교명상을 비롯한 명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상담개발원의 이번 사업 진행을 계기로 불교계에서는 수년간 배출된 명상지도사들의 활동영역 확장과 공공분야 전법포교 기회 확장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르면 불교상담개발원은 마음돌봄이 필요한 곳에 불교명상지도사 전문가들을 강사로 파견해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유도한다. 불교명상지도사는 현재 3기까지 총 60여 명이 배출된 상태다.

선업 스님은 "전문가 강사들이 각 기관을 찾아 사회적 약자들과 종사자들을 도울 계획"이라며 "늘 바라보고 돌본다는 '늘봄'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사회 곳곳에서 불교명상을 통해 사람들의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는 광진노인데이케어센터, 룸비니어린이집,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등 10여개 기관에서 신청한 상태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9월 18일 봉은사에서 '몸마음쉼' 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를 진행, 자살예방을 비롯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나선다. (02)737-7378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길"

동국대에 자비보시행,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9월 15일 동국대 총장실에서는 작은 행사가 마련됐다.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사진〉가 2100만 원 상당의 사과즙 1200세트를 기증한 것이다. 환경미화원 등 종립학교 종사자들과 재학생들을 위한 자리에서 학교 측은 감사인사를 건넸다.

불자인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는 과일과 채소류, 유지류 등을 납품하는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광범 명인 참기름'을 비롯한 친환경 최상급 제품을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른 새벽이면 가락시장으로 직접 달려가 물건을 살펴보고 이를 유통한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하루에 피곤할 만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좀 더 좋은 상품을 전하는 데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윤보다는 잘 만든 좋은 식품을 전하는 데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큰 규모의 유통법인이 아님에도 최 대표의 자비보시행은 다양한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연장학회 후원을 비롯해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고 밥차 봉사 등을 이어왔다. 1995년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17년에는 생활풍수 최고지도자과정도 수료한 인연으로 동국대에서는 중강당 좌석 기부를 비롯해 동국사랑 111 등 기부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최근에는 국제불교연합 회원으로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학교 건립 후원 등 불교국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들 국가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구매해 수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동국대에 다니며 부처님 자비사상에 대해 알게 됐고, 자비실천에 대해 마음먹게 됐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기부자리에서 좀 더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러한 나눔이 다른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3년 만에 팔재계 수계법회 연다

9월 24일 법주사에서

전국의 조계종 포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 지계를 다짐하며 전법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3년만에 다시 열린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9월 24일 보은 법주사에서 '제18회 팔재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사 3000여 명이 참석해 계를 받고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제27회 일반 포교사고시 합격자 359명에 대한 품수식과 포교사 연수를 위한 특강, 포교원력을 다지는 한글금강경 독송도 함께 펼쳐진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모녀인 봉국사불교대학 박국남, 조주연 씨와 자매인 백련암 홍혜영, 홍희정 씨 등 가족 합격자가 이름을 올렸다. 또 최연소 합격자는 만 30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80세다.

한편, 팔재계 수계법회는 신라 진흥왕 12년부터 내려온 문화로, 재가불자들이 수행을 점검한 데서 유래됐다. 노덕현 기자



"국악 속 불교문화, 유튜브로 알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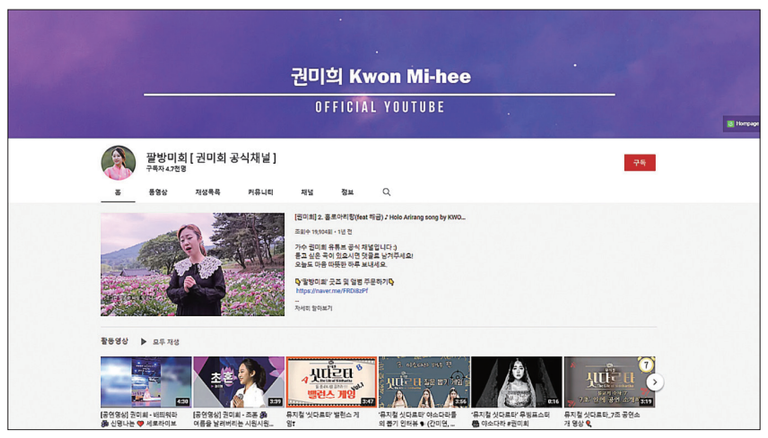
불교크리에이터 3기 만나다
② '팔방미희 산사버스킹' 권미희 국악가수

"사찰에 가면 접할 수 있는 것이 찬불가이고 우리 국악입니다. 국악가수로서 한국 전통 속의 불교문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9월 15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3기 불교크리에이터 위촉식에서 위촉된 국악가수 권미희 씨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국악가수로서 2009년 찬불가제작위 가창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2010년 앨범 '천상의 소리꾼'을 내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권미희 씨는 대한불교청년회 및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불교계 홍보대사도 맡아 불교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악가수지만 불교계 활동이 많기에 그녀는 2016년 만든 '팔방미희'라는 공식 유튜브채널(youtube.com/channel/UCctKz7gM1fXf11xqB011tng/featured)에서 최근 산사버스킹이라는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권 씨는 "우리 사찰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다. 우리 노래와 함께 사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었다"고 콘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를 전했다.

권 씨는 산사음악회에 갈때마다 공연만 하고 오기에 아쉬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권 씨는 "사찰에서는 평안함과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권 씨는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공연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양한 불교콘텐츠도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크리에이터로서 자부심이 큽니다. 음성공양을 통해 앞으로도 널리 포교활동을 하라고 선정해 주신 부처님의 마음이라 생각되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제20회 붓다빅퀘스천, 10월 15일 대면 개최

세계 주요 종교 사상 및 메시지 탐구

불광미디어와 마인드 아카데미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오늘 붓다 · 예수 · 무함마드 · 소태산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20회 붓다 빅 퀘스천'을 개최한다.

붓다 빅 퀘스천은 총 5명의 강사가 30분씩 강연 후 즉문즉답하는 토론의 장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열린다. 참가 신청은 불광미디어 웹사이트 신청자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참가자들에게 마인드 아카데미가 발행한 〈예일대학 명상수업〉이 증정된다.

이번 붓다 빅 퀘스천에는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마중물 강연으로 '종교,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할까?'라는 화두를 풀어낸다. 이어 인도고전학과 인도철학을 연구하는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교수가 불교 전승의 역사에서 남아있는 지혜를 전한다.

또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 교수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일원상의 진리와 함께 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대해 설한다. (02)420-3200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興天寺
조실 설악 무산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불자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 (청계로 475) 전화 031)426-2348,2221 팩스 031)426-3666